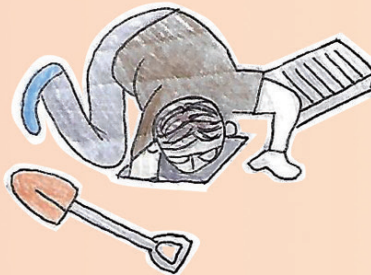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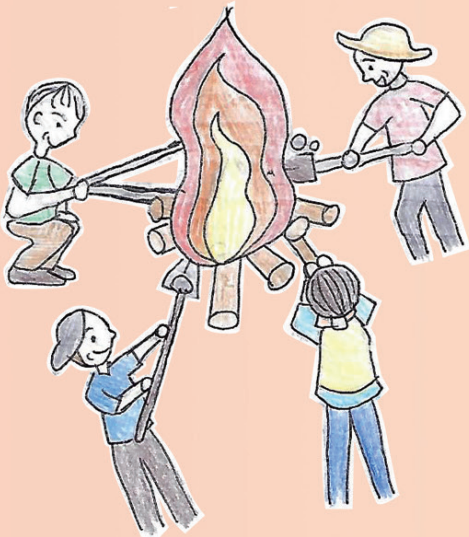




학생이 성장하고
교사가 안내하며
부모가 지켜주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목차

서울자유 발도르프학교 10주년 소식지

2012 ■ 2022

주소 _ 경기 부천시 옥길로56번길 97

퍼낸곳 _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행정실 _ 070-5165-1591

홈페이지 _ www.seoulwaldorf.org

이메일 _ seoulwaldorf@gmail.com

편집 _ 서울자유발도르프 교사회홍보팀

앞표지 그림 _ 박주은 학생(2022년 9학년)

뒷표지 그림 _ 이은수 학생(2022년 12학년)

발행일 _ 2022년 5월

제작대행·인쇄 _ E&E커뮤니케이션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소개 (화보) 5

터전 역사 (옛날 학사)	7
상량식 (학생 글)	8
신축학사 (공사)	12
학교 연혁	16

축사 19

Dr. Erhard Dahl 에르하르트 달	20
Gerhard A. Hallen 게어하르트 할렌	22
Dr. Christoph Jaffke 크리스토프 야프케	26
Michael Person 미하엘 페르존	28
Dr. Erdmut J. Schädel 에어드무트 쉐델	32
Elmar Schroeder 엘마 슈뢰더	34
(사) 한국 슈타이너 인지학센터 대표 이정희	38

담임과정 43

1학년 - 이예빈	44
2학년 - 김경주	47
3학년 - 이주영	51
4학년 - 이수진	56
5학년 - 김수미	59
6학년 - 김나현	62
7학년 - 오윤선	65
8학년 - 이지영	68
8년의 담임과정을 돌아보며 - 장은심	73
방과후 - 장준헌	77
영어 - 박량주	79
중국어 - 김가령	82
오이리트미 - 장영심	85
5학년 체육 - 이형진	88
5학년 목공 - 송경수	91

7학년 미술 - 이소윤	93
오케스트라 - 김대현	95
수공예 - 백금주&김윤희	97
한자퀴즈 - 우미송	101

상급과정 103

9학년 농업 - 이진형	104
9학년 수학 - 김선진	106
9학년 영어 - 강은주	108
10학년 화학 - 손에녹	110
10학년 문학사 - 박경미	112
10학년 영어 - 박지영	114
11학년 생태 - 손에녹	117
11학년 물리 - 김명진	119
11학년 음악사 - 정나래	121
12학년 환경 - 김민정	124
12학년 미술 - 이소윤	126
12학년 철학 - 이진형	128
12학년 석공 - 유병현	130
상급의 첫 4년을 보내고 - 정나래	132

서울자유발도르프 10년의 역사 141

새 학사 건축이야기 - 신의현	142
10년의 회고와 우리의 미래 - 장은심	146

서울자유발도르프 첫 12학년 149

10년간의 학교생활을 마무리하며... - 최효진	150
꽃별 - 문지훈	152
짐승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시기를 함께한 친구들에 대하여... - 최효진	153

서울자유발도르프 10행시 - 최동근	155
학교를 마치며 - 김가은	156

부모님 165

아이들의 친구 이야기 - 김은애	166
나는 너의 나이다 - 황정유	167
옥길동 코로나 적응기 - 박진명	169
너에게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봄바람, 나는 사계절을 봄바람 속에 살지 - 윤채원	170
나비의 꿈 - 남해식	172
서자발 천재들 - 김종선	173
Once Upon a Time in 서자발 - 이재철	174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의 10년 - 최경수	176

학교 행사 179

개학식 & 방학식	180
봄행사	182
용기의 날	185
소풍	186
체육대회	187
오프닝데이	188
하지제	189
예술발표회	190
행사&축제	192
입학설명회	193
특별행사 (Wow Day / 100주년)	195
학년별활동	197
상급실습	199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학교소개



1

“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철학

루돌프 슈타이너는

‘우리 최고의 노력은 아동이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발도르프 교육의 목표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실제적인 삶의 균형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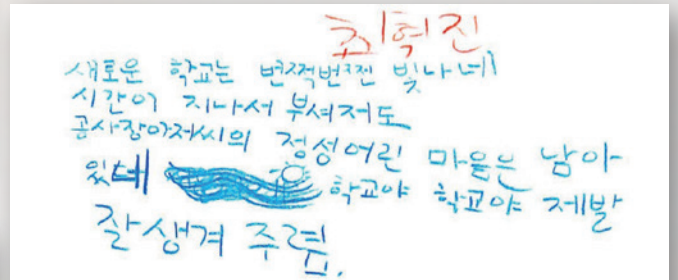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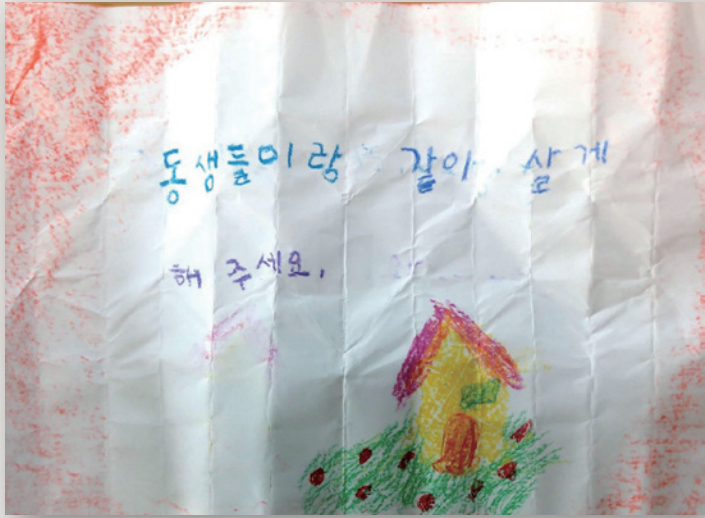
”



터전 역사 (옛날 학사)



상량식 (학생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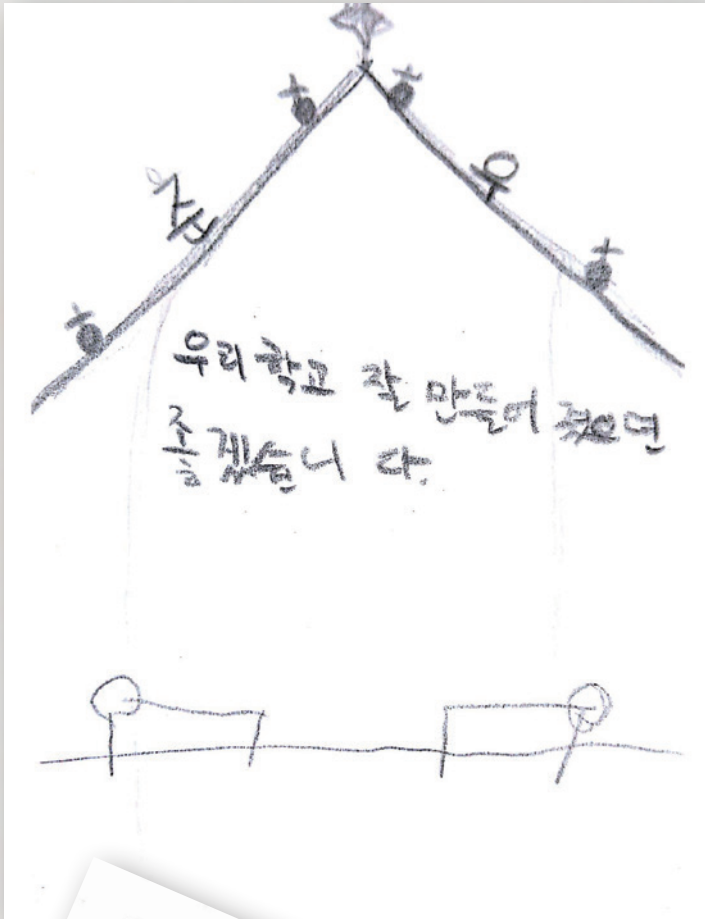


우리학교 튼튼하게 영원이
있어라
이편지 없게되면
안된다!
서울자유발도르프 5학년 이민아
2017년2월27일월요일

2017년2월27일
5학년
박은희
10년 동문의
어린박사
사

<새학교에서>
도서관에 있는책이
1만권 ~~책~~이 없었으면
충족되고 우리교실이 제일
크고 방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학교에 철게도가 붙어있으
면 좋겠다 그리고 새학교
가면 오징어가 새 ~~책~~이라
느릴때마다 하고싶다
안호

장유 #만드러쨌라
5학년 송지호



1. 새학교에 가면 매일 매일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2. 가면 우리만 즐겁게 놀고 7.8학년 들은 심심했으면 좋겠다.
3. 학교안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학교가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To. 학교

안녕!!!
학교야 튼튼하게 계속 있어줘
그후 우리가 계속 10년
20년 30년 100년 계속 있어
우리가 안전하게 있게 해주고
잘 있어줘

- 상화
2019. 2. 24

오병기, 동병기 만들이 만들어주세요.
신승훈

희정록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가 완성되면
우리가 들어가 공부하고 생활하겠구나
우리가 졸업해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공부하고 생활하겠구나
학교야 산권이 10번 바뀌는 시간동안
힘있게 서있서라

2017년 2월 24일 **솔**

지어지고 있는 서울자유 발도르프가
항상 튼튼하게 오래동안 빛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을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던것을
하루, 같이 생각할수 있기를...



박다경

문지은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의 밝은시각을
축하하며

이 학교가 시각하며
이 땅이 시각하며
오랜시간이 흘러가며
이 시각이 변화갈네

밝은 불빛이 시각이
작은 불빛이듯이
이 시각은 밝고
더 밝게
이세상을 밝히고
서 밝고 밝은하늘에
웃아오르네

2017. 2. 24

서 학교야 안녕?
나는 현재 9학년 이종현 이야.
제발 학교에 사고 없게 해주렴!
그리고 우리 졸업할때 까지 잘
버티고 몇십년동안 잘지내.
나 학교들어 가면 잘게 내게 해주렴!
안녕! 나는 이만갈게!

2017년 2월 24일

-종현-

신축학사 (공사)









서울자유발도르프 10년의 타임라인

학교연혁

현재

교사 35명
학생수 217명

01월 22일
제1회 졸업식
(졸업생 14명)

2022년

2021년

03월
도서관 운영

02월
학교 운영조직개편
상급 학생회 운영

2019년

12월
상급과정 신설

2017년

09월
새터전 축제

12월
제1회 오케스트라

2016년

07월
새학사로 이전
(옥길로56번길 97)

09월
영구터전 착공

2015년

06월
제1회 WOW-DAY

2014년

10월
제1회 가을운동회

03월 04일
2013년도 입학식
(신입생 19명)

01월
감나무 캠퍼스 분교 개교 - 공간 확장
(연동로 49)

2013년

02월 23일
창립총회

11월
제1회 바자회

2012년

07월 14일
2012년 제1회 1학기 예술발표회

08월
제1회 학부모교육



03월 10일
자유발도르프학교 개교식 & 입학식
(교사 6명, 1학년 19명, 2학년 4명, 3학년 9명)

2012년 01월

비영리법인 설립

2011년 10월

2차 편입학 설명회 개최

2011년 09월

부천시에 학교 공간 마련
1차 편입학 설명회 개최

2011년 04월

발도르프학교 만들기를 위한 공부모임





축사



2

Dr. Erhard Dahl (에르하르트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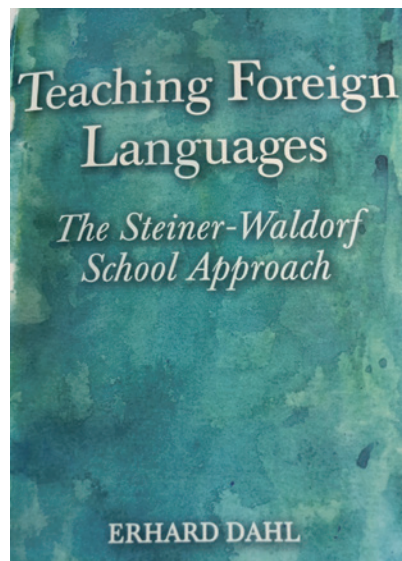
에르하르트 달 박사

과거 독일 슈트트가르트, 울란스회 발도르프학교 근무 ; 현재 발도르프 교육 세미나 슈트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 초빙 교수

2022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동료 여러분들께,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10주년을 기념하여, 교직원, 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돌봄과 책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특히 이 학교를 다니는 혜택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모든 교직원과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애써서 “발도르프교육은 세상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미래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라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바람을 실현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슬픈 일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전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를 설립할 당시 여러분이 하셨던 그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진정한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자유발도르프의 구성원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미래의 시도와 노력 속에서 성공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Dr. Erhard Dahl (에르하르트 달)

Dear colleagues of Seoul Free Waldorf School,

I take great pleasure in congratulating staff, parents, and pupils of Seoul Free Waldorf School on the tenth anniversary celebration. Quite a number of pupils have already benefitted from attending your school, in particular from the care and responsibility which you have devoted to them.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eaching and supporting staff and parents for you have obviously taken great efforts to realize Rudolf Steiner's desire that "Waldorf education will move the child as well as the world forward". The sad thing of our times is not what we do not achieve, but rather what we do not even try to achieve. But it is in trying - and this is what you did when founding Seoul Free Waldorf School ten years ago - where true idealism lies.

I would like to wish members of Seoul Free Waldorf School continued success in their future endeavours.

March, 2022

Dr. Erhard Dahl

former colleague of
Waldorfschule Uhlandshöhe,
Stuttgart, Germany ;
at present guest lecturer at Freie
Hochschule Stuttgart, Seminar
für Waldorfpädagogik

Herr Gerhard Hallen (게어하르트 할렌)



게어하르트 할렌
Gerhard A. Hallen
Schwerte/Deutschland

1952년 독일 태생. 뮌스터 빌헬름 대학에서 역사와 독문학 전공. 교사 자격 취득. 고등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1978년부터 13년간 박물관 소장으로 일하심. 1991년 헤르네 세미나에서 발도르프 교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하겐의 슈타이너 학교에서 담임교사 역임. 교사 역임 중에 발도르프교육의 특별방법론인 체험교육과 특수교육 공부. 1997년 독일 부퍼탈의 특수학교 크리스티안-모르겐 슈테른 학교(정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10년

1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창조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서울 자유발도르프학교의 학생들, 교사 그리고 특별히 부모들은 보여주었습니다.

10년 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3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6명의 교사는 변두리에 세워진 소박한 학사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또 매년 한 학급씩 안정감 있게 올리기 위해 큰 이상을 가지고 희생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멀리서 초창기 학교의 이런 활발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행사 사진과 함께 이메일을 받았고, 그 사진에서 일의 과중함으로 인해 피곤함이 서린 교사들과 부모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활짝 웃는 모습과 수업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잘 가꾼 공간과 칠판 그림, 또 아이들의 축제 복장에서 독창성과 구속되지 않은 창의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부모들과 교사회의 엄청난 의지의 힘을 통해 아름답고 빛이 가득한 새로운 학사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으로 학교를 옮긴 후에 저는 쉐델 박사님과 함께 멘토링을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학교 구성원들의 사랑 가득하고 인간미가 넘쳐흐르는 환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모든 교실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훌륭한 교육은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우리가 불시에 어떤 학급을 방문했을 때에도 모든 수업은 매 시간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귀퉁이마다 창의력의 입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피아노 앞에 앉아 창작 연주를 하고, 오이리트미 시간에 동작의 형태를 스스로 만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활동은 독일의 오이리트미 전문가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Herr Gerhard Hallen (게어하르트 할렌)

10 Jahre Freie Waldorfschule Seoul

Wie viel in einem Jahrzehnt geschaffen und auch bewältigt werden kann, haben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die Lehrerinnen und Lehrer und in besonderer Weise die Eltern der Freien Waldorfschule in Seoul bewiesen.

Mit 33 Kindern in den Klassen 1-3 nahmen vor 10 Jahren sechs Lehrkräfte die Arbeit auf. Unterrichtet wurde in schlichten Baracken auf freiem Gartenland. Eltern und Lehrerinnen brachten viel Idealismus, Opferbereitschaft und Kreativität auf, um den Schulbetrieb zu gewährleisten und das fortlaufende Wachstum der Schule um jährlich eine Jahrgangsstufe zu sichern.

Meine Frau und ich hatten damals Gelegenheit, diese großartigen Aktivitäten aus der Ferne beobachten zu dürfen.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erreichten uns Mails mit Fotos von Veranstaltungen verschiedenster Art, und wir hatten erwartet, auf diesen Fotos abgearbeitete Lehrkräfte und gestresste Eltern zu sehen. Stattdessen bemerkte wir stets ein offenes Lachen, Freude am Unterricht und anhand der Ausstattung der Räume, der Tafelbilder und der Verkleidung der Kinder einen großen Einfallsreichtum wie auch eine ungebremste Kreativität.

Nachdem die Schule 2017 durch einen großen Kraftakt der Eltern und des Kollegiums den wundervollen und vom Licht durchfluteten Neubau bezogen hatte, wurden ich, gemeinsam mit Herrn Dr. med. Erdmut Schädel, zur Hospitation eingeladen. Die Gastfreundschaft und das Wohlwollen, das uns entgegengebracht wurde, waren ein Bad in liebevoller menschlicher Zuwendung. Das wurde nur noch von der wunderbaren Pädagogik übertroffen, die in allen Klassen gepflegt wurde. Jede Unterrichtsstunde war perfekt vorbereitet – auch wenn wir mal überraschend eine Klasse aufsuchten.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genossen es sichtlich, diese Schule besuchen zu dürfen. Und über allem schwebte ein feiner Hauch von Kreativität. Ich entsinne mich noch, wie sich Schüler in den Pausen an den Flügel setzten und improvisierten, wie in der Eurythmie de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die Gelegenheit geboten wurde, eigene Formen zu entwickeln – was bei uns in Deutschland selbst ausgebildeten Eurythmisten*innen nicht leicht fällt. Auch herrschte in allem, was hier vollbracht wurde, eine große Lern- und Lebensfreude – was bekanntlich nicht selbstverständlich zueinander findet.

서의 어려움, 배움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 다니는 발도르프 특수학교)에서 두 번의 8년 담임 과정을 하시고, 중간 안식년 때 독일 도르트문트 크로스토페르스 학교(발도르프 특수학교)에 멘토로 활동.

2014년에 학교를 정리하시고 현재 저서 활동과 비튼 발도르프 사범대학의 치료교육과와 헤르네 발도르프치료 교육을 위한 교사세미나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두 자녀를 두셨고, 여섯 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할렌 선생님은 타고난 문장가로 발도르프 교육의 역사이야기, 연극 대본, 치유 교육을 위한 안내서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기의 예를 여러 발도르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저서:

루어탈의 어제와 오늘, 슈베르트의 도시사, 마이너츠하겐 1983
 슈베르트의 역사, 베스트팔렌, 1989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베렌, 베스트팔렌의 연금술사의 전기, 슈베르트 1996
 헤르네 치유교육과정, 노더슈테트, 2015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아주 커다란 배움의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학사 건축을 축하하는 축제는 단지 기쁨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보살핌으로 모두를 단합시키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 전에 다시 한번 저는 제 부인과 함께 4주간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의 대화에서 우리는 동료 교사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지식의 깊이와 유연한 받아들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듣고 그 다음 날 바로 적용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사랑 가득하고 공감 넘치는 눈길이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배움에 약하거나 다른 특별함을 가진 아동들이 2년 동안에 극복되었고, 어떤 경우는 능력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힘이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의 지원을 통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성장하며 작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 학교의 일상을 사는 교사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을 변화일 수도 있지만, 2년의 간격을 두고 방문한 사람에게는 뚜렷하게 보이는 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학교 공동체는 독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학교를 만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에는 217명의 학생이 있고,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학교는 건립 단계를 넘어서 안정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정신세계의 당연한 도움의 손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갑자기 느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진심 어린 반성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그 공정성과 열린 웃음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성장한 학교조직은 공동의 기초를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들, 특히 좋은 영감에 대한 개방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문명이 가져오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여, 꾸준히 개발하고 사용하여 미래 세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emerkenswert war auch die soziale Gemeinschaft. Das kam insbesondere bei der feierlichen Einweihung des neuen Schulgebäudes zum Ausdruck, bei der nicht allein eine ausgelassene Freude herrschte, sondern auch ein Gemeinschaftsgeist, der alle in einer liebevollen Zuwendung zueinander vereinte.

Vor zwei Jahren hatten ich dann noch einmal die Gelegenheit, gemeinsam mit meiner lieben Frau die Schule zu besuchen und vier Wochen in vielen Unterrichtsstunden zu hospitieren. An den Fragen, die bei den Nachbesprechungen der Unterrichtsstunden von den Kolleginnen und Kollegen gestellt wurden, konnten wir den Kenntnisreichtum und das große Reflexionsvermögen bewundern. Auch stellten wir mit Bewunderung fest, dass all dasjenige, was zur Optimierung des Unterrichts besprochen worden war, schon am folgenden Tag umgesetzt wurde. Ebenso bemerkenswert war der liebevolle und empathische Blick aller Kolleginnen und Kollegen auf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An der Entwicklung der Kinder und Jugendlichen konnten wir dann feststellen, dass viele Besonderheiten, unter anderem auch Lernschwächen, nach zwei Jahren kompensiert, teilweise sogar in Talente umgewandelt worden waren. Den Lehrkräften war es durch die Unterstützung seitens der Eltern wie auch durch die effektive kollegiale Zusammenarbeit gelungen, kleine Wunder zu vollbringen.

Das war den Betroffenen vielleicht gar nicht so aufgefallen, aber durch den zweijährigen Abstand zwischen den Besuchen war diese Entwicklung erkennbar geworden. Eine so großartige Schulgemeinschaft sucht in Deutschland ihresgleichen. Nicht dass es Derartiges auch "bei uns" gäbe, aber man muss schon suchen, um eine Schule mit vergleichbarem Niveau aufspüren zu können.

Da die Freie Waldorfschule Seoul nun ihre erste zwölfte Klasse entlassen hat und mit 217 Schülerinnen und Schülern voll ausgestattet ist, tritt sie nach der Gründungsphase in ein Stadium der Konsolidierung. Man fühlt sich plötzlich nicht mehr wie selbstverständlich von jenen Hilfen getragen, die aus der geistigen Welt kommen. Nun heißt es, jene Unbefangenheit, jenes offene Lachen, das wir mit Freude beobachten durften, durch eine fortlaufende herzenswarme gedankliche Reflexion des eigenen Handelns zu untermauern. Das bedeutet bei einem gewachsenen Schulorganismus eine intensiviertere Arbeit an den gemeinsamen Grundlagen.

Möge die Offenheit für Neues, insbesondere für gute Inspirationen, nicht nur erhalten bleiben, sondern angesichts der vielen Herausforderungen, die unsere Zivilisation mit sich bringt, stetig wachsen und zum Gedeihen der kommenden Generationen beitragen.

Dr. Christoph Jaffke (크리스토프 야프케)



크리스토프 야프케 Christoph Jaffke

- 196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발도르프학교 교사
- 1975년 호크솔레 발도르프 교육 세미나 시작
- 1994년 저학년 외국어 수업방법론 출판
- 2005년 히로시마대 초빙교수
- 2006년 도교 아오야마 가쿠인대 교수
- 2006년 슈투트가르트 네번째 발도르프 학교 설립멤버
- 2006-2011 저학년 영어 교사
- 2012년 광저우에서 중국 발도르프 영어 교사 연수 운영
- 2022년 현재까지 30여개 국가에서 강연, 교사교육, 코치 진행

친애하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동료, 부모, 학생 여러분들께

100년도 훨씬 전에 발도르프 교육이 시작되었던 슈투트가르트에서 저는 여러분 학교의 10주년에 대한 축하와 기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새로 설립된 학교의 여러 어려운 점들을 뒤로하고 한국의 수도에서 발도르프 운동의 확산을 지원하고 튼튼한 기둥을 세우며 발전해 왔습니다.

몇 년 전 여러분의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저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30개 이상 나라의 발도르프 학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학교 건물들보다도 여러분의 학교가 매우 ‘현대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학교였지요. 외관상으로 기능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고, 동시에 저는 매우 특별한 친절과 따뜻한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의 감독관 중 한 명이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학교가 개교한 지 몇 년 후에 알게 된 사범대에 대한 인상을 묘사했던 것이 강하게 생각났습니다. 그 감독관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고상한 언어로 표현했지만, 저에게는 그가 했던 말이 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도르프 학교를 접하게 된 사람은 특별한 교직원들이 일하는 이 학교에 대한 그 첫 순간의 인상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교사들 간의 유대감이 모범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타인에게 봉사하고, 각자 차례로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힘을 주변과 사방으로 보냅니다. 교직원들의 전문적인 일은 다른 어느 형태의 학교에서도 본 적 없고, 느껴본 적 없는, 높고 신성한 자질로, 동일한 정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고 번영하고, 발도르프 정신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를 기원합니다.

Dr. Christoph Jaffke (크리스토프 야프케)

Dear Colleagues, Parents and Students of the Freie Waldorfschule Seoul,

from Stuttgart, where Waldorf education started more than a hundred years ago, I'm sending you my congratulations and very best wishes on the occasion of your 10th anniversary. Having left the teething problems of a newly-founded school long behind, you have developed into a strong pillar supporting the spread of the Waldorf impulse in the Korean capital.

Before visiting your school several years ago, I had been to Waldorf schools in more than 30 countries in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None of the school buildings impressed me so much as 'modern' as yours, which consists of a great deal of steel and glass. Outwardly this might be felt as promoting functionality and objectiveness. At the same time, I experienced a very special atmosphere of cordiality and warmth, which strongly reminded me of how one of the first state school inspectors described his impression of the college of teachers he got to know a few years after the Stuttgart Waldorf School had been founded. Even though the inspector obviously used the somewhat elevated language of his time, what he wrote appears to me to be highly relevant: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the Waldorf School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impression from the first moment that a unique teaching staff is working at this school. The bond between the teachers seems to me to be exemplary; one serves the other in love; each radiates strength in order to absorb strength in turn ... The professional work of the teaching staff is filled with the same spirit, with a high and holy quality that I have never found and felt in any other type of school.”

May you continue to grow and flourish, and cultivate and spread the Waldorf spirit to the best of your ability.

Michael Person (미하엘 페르존)



미하엘 페르존
Michael Person

엔지니어로 활동하시다 발도르프학교 물리교사가 되어 베를린 다흐렘 슈타이너 학에서 수학, 물리, 기계학을 수업했고, 베를린 에밀 몰트 학교의 대표교사로 활동했다. 이후에는 연극 교사로서도 활동하였다. 2003년부터 다양한 학교에서 발도르프 교육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 2006년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어 청계, 서울자유, 동림 학교 상급과정을 위한 멘토로 활동 중이다. 현재에도 베를린의 다수 발도르프 학교에서 물리 에포크 수업을 돕고 있고, 발도르프 교육 세미나 과정에 수학, 물리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사랑하는 동료교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우선 10년의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2017년부터 이 학교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상급학년의 물리수업을 포함하여 함께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적극적인 교사들과 부모, 너무나 멋진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유럽의 전쟁을 통해 세계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발도르프교육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깨닫게 됩니다.

발도르프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자유로운 성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일입니다. 용기와 자의식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교육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요소를 특별히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간의 관계와 진정한 만남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당연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고, 그리고 교사와 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만남입니다.

이 두 요소는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며, 움직임이 제약되고, 온라인 수업 등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가 제약됩니다.

또한 우리가 금세기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유럽의 전쟁은 진정한 의사소통과 관계의 결여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학교의 성장, 즉 발도르프 교육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발도르프 학교 간의 협력 작업입니다. 저는 여러 번의 한국 방문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매우 긍

Michael Person (미하엘 페르존)

Liebe Lehrer, liebe Eltern, liebe Schüler der Seoul freie Waldorfschule, zunächst einmal herzlichen Glückwunsch zum 10-jährigen Bestehen!

Seit 2017 durfte ich die Entwicklung der Schule beobachten, beziehungsweise begleiten, inklusive Physikunterricht in der höchsten Klasse. Und ich habe sehr engagierte Lehrer und Eltern und wunderbare Schüler kennengelernt.

Seitdem hat sich – vor allem in den letzten beiden Jahren – durch die Corona-Pandemie, aber auch jetzt durch den Krieg in Europa / der Ukraine sehr viel in der Welt verändert. Das hat mir noch einmal besonders vor Augen geführt, wie wichtig die Waldorfpädagogik und ihre Grundlagen sind.

Ich sehe als Hauptaufgabe der Waldorfpädagogik an, die jungen Menschen so zu erziehen, dass sie als Erwachsene freie Menschen werden, die mit Mut, Selbstbewusstsein und Vertrauen in sich selbst und ihre Umgebung Entscheidungen treffen und demgemäß handeln.

Die oben genannten Ereignisse haben dabei die große Bedeutung zweier Elemente dieser Pädagogik besonders hervorgehoben: die wirkliche Begegnung von und die Beziehung zwischen den Menschen. Das bedeutet zunächst natürlich die Beziehung zwischen Lehrer und Schüler, aber genauso auch zwischen Lehrern und Eltern und den Eltern untereinander. Beides ist nur im persönlichen Gespräch möglich und kann nicht wirklich durch digitale Medien ersetzt werden.

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세 번의 물리 에포크 시간에 (서울자유 9학년, 청계 11, 12학년) 여러 다른 학교 교사들이 참관했습니다.

6-8학년의 물리 수업을 위한 세미나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서울학교와 청계, 동림 학교에서의 물리수업을 위한 세미나에 다른 학교 교사들이 모두 모여 함께 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회윤리에 대한 금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인간의 영혼에
전체 사회가 반영되어 형성되고
전체 사회에
개별영혼의 힘이 살아 움직일 때만이
건강하다.

이 금언은 개별 조직으로서의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의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동의 협력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많은 용기와 주체성, 신뢰를 가지고 다른 학교와 함께 일하시길 기원합니다.

Gerade die Pandemie mit ihren Einschränkungen (Maskenpflicht, Abstandsregeln, Einschränkung der Bewegungs- und Begegnungsmöglichkeiten, Online-Unterricht) hat mir gezeigt, wie wesentlich diese Elemente sind.

Ebenso hat der für uns in diesem Jahrhundert nicht mehr für möglich gehaltene Krieg in Europa das Fehlen von wirklicher Kommunikation und Beziehung deutlich gemacht.

Daneben gibt es ein weiteres wichtiges Element zur gedeihlichen Entwicklung der Schule, beziehungsweise der Waldorfpädagogik: die Zusammenarbeit der Waldorfschulen. Das hat sich sehr positiv bei mehreren meiner Besuche in Korea gezeigt. An allen drei Physikepochen, die ich gegeben habe (9. Klasse Seoul, 11. und 12. Klasse Cheonggye) haben Lehrer aus verschiedenen Schulen hospitiert. Beim Seminar für die Klassenlehrer zur Physik der 6. Bis 8. Klasse haben ebenfalls Lehrer aus verschiedenen Schulen teilgenommen. Ich konnte dabei ebenso wie in den Epochen und auch beim Physikseminar für Lehrer der Schule von Dongrim auf die Sammlungen der Schulen von Cheonggye und Seoul zurückzugreifen.

Rudolf Steiners Motto der Sozialethik drückt das noch einmal anders aus:

Heilsam ist nur, wenn
Im Spiegel der Menschenseele
sich bildet die ganze Gemeinschaft;
und in der Gemeinschaft
lebet der Einzelseele Kraft.

Dieses Motto kann man durchaus auf die Schulen als individuelle Organismen übertragen. Sie können eine Gemeinschaft bilden, ohne dabei auf ihre Selbständigkeit zu verzichten.

In diesem Sinne wünsche ich der Seoul freie Waldorfschule für ihre weitere Entwicklung viel Mut, Selbstbewusstsein und Vertrauen in sich und die Zusammenarbeit mit den anderen Schulen.

Dr. Erdmut J. Schädel (에어드무트 쉐델)



에어드무트 쉐델 박사
Dr. Erdmut J. Schädel
Dornach/Arlesheim -
Schweiz

독일 쾰른 태생, 현재 스위스 국적.
소아, 청소년 전문 인지학 의학 의사. 치료교육자
1986년부터 스위스 이타 베크만 병원 (슈타이너 박사 당시에 세워진 최초의 인지학 의학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활동. 일반소아과 중에서 특히 아동발달, 치료교육 전문. 1995년부터 2014년 스위스 아를레스하임의 Sonnenhof의 담당의사로 활동(학교의사활동). 교사와 대중을 위한 강연과 저작 활동. 세 자녀

100년 전에 처음 발도르프 학교가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해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설립되었을 때, 2022년에는 전 세계 67개국에 1000개가 넘는(정확히 말하면 1214개) 발도르프 학교, 루돌프 슈타이너 학교가 생길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교 중 하나가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이며 이제 상급 학년까지 완성되어 10년 기념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발도르프 교육의 교과과정에 의해 교육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 인적인 인간상과 세계상이 이 교육의 배경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삶이 물질적인 가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체 인류와 함께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동쪽, 서쪽, 북쪽 그리고 남쪽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판단력을 형성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풍부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자신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공헌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2017년과 2018년에 알게 된 서울자유발도르프 학교의 10주년을 축하하고, 이 같은 헌신과 열정으로 학교를 계속 운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Dr. Erdmut J. Schädel (에어드무트 쉐델)

와 세 명의 손자를 둬.

저서:

1.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기. 괴테아눔출판사, 2010
2. 영유아시기. 에어씨웅스쿤스트 2010.2/3/4
3. 모태기간, 탄생과 영유아시기. 콜함머 출판사. 슈튜트가르트 2006
4. 의학-치료적 과제. 에언스트 라인하트 출판사, 뮌헨 2008
5. 의학과 치료교육, 베른 출판사 2006
6. 영양과 치료, 자유정신 출판사, 슈튜트가르트 2011

그 외 인지학 의학 잡지에 아동의 발달과 특수아동, 청소년 관찰 등에 관한 원고 다수, 그리고 의사 활동 외에 스위스 도르나흐의 치료교육과 사회치료학과, 도르나흐의 인지학 교육 아카데미, 괴테아눔 치유오이리트미 과정, 우크라이나 키예브의 치료교육 세미나, 아를레스하임 의사교육과정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Als vor über 100 Jahren die erste Waldorfschule in Stuttgart/Deutschland von Rudolf Steiner gegründet wurde, hätte niemand daran gedacht, dass es im Jahre 2022 über 1000 (genauer gesagt: 1214) Waldorf- und Rudolf-Steiner-Schulen in 67 Ländern der Welt geben wird. Eine davon ist die Seoul Freie Waldorfschule, die nun bereits ihr 10. Jahres- Jubiläum hat und bis zur Oberstufe ausgebaut ist!

Es ist wunderbar zu wissen, dass immer mehr Kinder auf der ganzen Welt nach dem Lehrplan der Waldorfpädagogik erzogen und unterrichtet werden. Das umfassende Menschen- und Weltbild, welches hinter dieser Pädagogik steht, hilft jungen Menschen immer mehr ein Bewusstsein davon zu bekommen, dass nicht nur die materiellen Werte eine Rolle im Leben spielen, sondern dass der einzelne Mensch und die gesamte Menschheit sich in einem Entwicklungsprozess befinden, der hoffentlich zu einem guten Ende kommen wird. Mehr denn je braucht die Welt Menschen im Osten, Westen Norden und Süden, die gelernt haben, sich ein eigenes Urteil zu bilden, Rücksicht auf ihre Mitmenschen und die Umwelt zu nehmen und sich ideenreich und kreativ im Berufs- und Sozialleben einzubringen.

Insofern möchte ich der Freien Waldorfschule Seoul, die ich in den Jahren 2017 und 2018 kennen lernen durfte, ganz herzlich zu diesem Jubiläum gratulieren und wünschen, dass die Schule weiterhin mit solchem Engagement und Enthusiasmus geführt wird.

Elmar Schroeder (엘마 슈뢰더)



엘마 슈뢰더 Elmar Schroeder

독일 튀빙엔 대학교에서 생물학, 유전학,
식물생리학 전공

슈타이너 생명역동농법과 데메터 협회
에서 연구 활동

프라이부르크 발도르프 학교에서 30년
간 상급과정 교사 역임(생물, 화학, 종교)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 초빙
교수(식물학, 동물학, 화학 교수법 지도)
카셀 상급과정교사 지도 교수 (생물, 화
학 수업 원리와 방법론)

독일 지역의 강의와 한국 인지학 센터
강의

2018년부터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상
급과정 멘토

사랑 안에 정신의 힘이 펼쳐지길
선함에 정신의 빛이 깃들기를
영혼의 안정감과 든든함이
젊은 인간의 존재에
실존의 활동의 힘을 위하여
내면의 진실을 위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이 곳이 그에게 바쳐진다.

루돌프 슈타이너 <초석> GA 269, P. 167

친애하는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의 부모님, 동료 교사 여려
분, 학생 여러분,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가 10년이 되었군요. 아주 젊지도 않
고,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나이입니다! 이 세월 동안 많은 것들
을 이루어냈습니다. 멋진 학교 건물을 지었고, 상급에 12학년
까지 올렸고, 교사회는 발도르프 교육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
딛고, 부모님들은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외적으로 뿐만 아
니라 내적으로도 교사들의 활동을 신뢰하며 함께 이 학교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생동감 넘치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
고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동료 교사들이 발도르프 교육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각자가 자신의 작업 안에 교육의 정신적 내
용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약된 교사들의 교육 정신의 활동에 학
생들이 공명을 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포크 시간과
음악, 오이리트미와 같은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학교 안에 배움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감
지할 수 있었습니다.

Elmar Schroeder (엘마 슈뢰더)

Es walte, was Geisteskraft in Liebe, Es wirke, was Geisteslicht in Güte Aus Herzenssicherheit Und Seelenfestigkeit In jungen Menschenwesen Für des Leibes Arbeitskraft, Für der Seele Innigkeit, Für des Geistes Helligkeit Erbringen kann. Dem sei geweiht diese Stätte.

R. Steiner: “Grundsteinspruch”
GA 269, S.167

Liebe Eltern, Kollegen und Schüler der Freien Waldorfschule Seoul,

10 Jahre Freie Waldorfschule Seoul – nicht mehr jung und noch nicht alt! In diesen Jahren ist schon sehr vieles gelungen – ein schön gestaltetes Gebäude ist bezogen worden, eine erste 12. Klasse belebt die Oberstufenräume, das Kollegium arbeitet mit Engagement für die Waldorfpädagogik und die Elternschaft trägt und stützt die Schule äußerlich – durch die finanziellen Zuwendungen – und innerlich – durch Vertrauen in die Arbeit der Lehrerschaft und gemeinsames Bemühen um die Erfüllung des Ziels, hier am Ort Waldorfpädagogik lebendig werden zu lassen.

Bei meinen Besuchen an der Schule konnte ich selbst unmittelbar wahrnehmen, wie intensiv die Kollegen sich in die Waldorfpädagogik einarbeiten und ihre Arbeit vertiefen, um mehr und mehr den geistigen Gehalt der Pädagogik aufzunehmen und zu

루돌프 슈타이너는 슈투트가르트에 첫 번째 발도르프 학교가 세워진 그 당시 학교 건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미래를 위해 집중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영감 넘치는 감성과 정신성이 가득한 사고가 바쳐지는 곳이 될 것이다.”

본인의 생각에도 서울에서 처음 10년 동안 위와 같은 초석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학교는 열 살이 되었고 그 기간에 많은 것을 이루었고 튼튼한 반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 살의 어린 나이로서 미래를 향한 길은 다시 새롭게 발도르프 교육의 정신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미래입니다. 매해 마다 1학년이 학교에 들어오고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요구가 생깁니다. 그들은 성인인 우리를 신뢰하면서 이 장소에서 각자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10년의 발도르프 교육을 축하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praktizieren. Und ich konnte in der Schülerschaft die Resonanz auf diese intensive geistig – pädagogische Arbeit der Lehrerschaft bemerken, denn es lebt in der Schule ein aktives Lernen und Arbeiten – in allen Gebieten, seien es die Fächer des Hauptunterrichts, sei es im künstlerischen Bereich wie der Musik oder der Eurythmie.

R. Steiner drückte es beim Bezug des Schulhauses der ersten Waldorfschule damals in Stuttgart folgendermaßen aus: Er wünsche für die Zukunft, das Schulhaus möge eine dem intuitiven Tun, dem inspirierten Fühlen und dem geistvollen Denken geweihte Stätte sein. So denke ich, dass in den ersten 10 Jahren hier in Seoul der Grundstein für die Erfüllung dieses Wunsches geschaffen worden ist.

So ist die Schule 10 Jahre alt – vieles ist gelungen und bildet ein sicheres Fundament – und auch 10 Jahre jung – der Weg in die Zukunft kann immer wieder neu im Geiste der Waldorfpädagogik gestaltet werden. Ja, und auch das ist Zukunft: Im Jahr für Jahr kommen nun Erstklässler an die Schule mit neuen Fragen und Herausforderungen – sie suchen im Vertrauen auf uns Erwachsene ihren Weg in die eigene Zukunft an diesem Ort.

Herzlichen Glückwunsch für 10 Jahre Waldorfpädagogik in Seoul aus Freiburg/ Deutschland!

열정의 나이테 / (사) 한국 슈타이너 인지학센터 대표 이정희



이정희 박사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 박사학위 취득.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에서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발도르프 육아예술”을 썼으며, 현대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활동 중이다.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 축제가 2019년 독일 남부 도시 슈투트가르트를 넘어 세계적으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모두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19년 “새 교육”을 실천하고자 개교한 올란츠회에 발도르프 학교는 한 지역 사회, 한 국가를 위한 “교육 혁신”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며, “세상을 바꾸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발도르프 교육은 독일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세계적인 창의 인성 교육의 대명사로 백년대계의 미래 교육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발도르프 학교 현장이 하나씩 늘어가는 가운데, 2012년 3월 경기도 부천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서울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철학으로 자녀를 교육하기로 결정한 학부모 31세대가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인지학센터”)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당시 온수동에 위치한 인지학센터는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고, 33명의 아동을 위해 발도르프 학교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발도르프 교사 발굴을 위해 국내외를 두리번거리며 6명의 초대 교사를 영입했습니다. 발도르프 명칭 사용을 위한 국제교류까지 성공리에 마치고 개교식과 함께 인지학센터의 “산파” 소임은 막을 내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표현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시간 단위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포에 위치한 인지학센터에 10주년 축사 청탁이 도착했을 때, 서울학교 출범 이후 쏠살같이 흘러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임대 공간에 오이리트미 과목까지 구색을 갖춰 시작한 작은 서울학교가 지금은 학사를 우뚝 세웠고, 재학생은 200명이 훌쩍 넘으며, 교사진은 4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발도르프 학교의 특성상, 교사-학생-학부모가 유기적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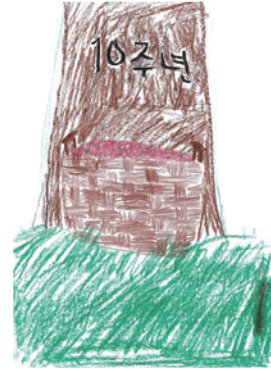
통과의례와도 같은 성장통을 견뎌낸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에

열정의 나이테 / (사) 한국 슈타이너 인지학센터 대표 이정희

게 힘찬 갈채를 보냅니다. 10년간 비바람을 견딘 나무에는 선명한 무늬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오늘 듚직하게 서 있는 나무 등치에는 어제의 시련을 뚫고 자양분이 담겼습니다. 산과의 눈에는 학교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보이지 않는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선명히 보입니다. 서울학교의 탄생과 초기 성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열정을 다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앞으로 더욱 여물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한 세기 전부터 발도르프 교육학이 주창한 내용,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더욱 절실합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아이들이 국가 차원의 “교육인적자원”이 아님을 공감하기에, 루돌프 슈타이너가 1907년 명료하게 피력한 바를 되새깁니다. 아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아동 발달에 맞는 교육내용을 “교육예술”의 방법을 통해 전달할 때, 아이는 저마다 다른 개별체로 성장하고 저마다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10년의 경험을 쌓은 서울자유 발도르프 교육 공동체가 슈타이너 교육학의 근본 취지를 더 힘차게 살려내고 부친 지역을 넘어 다양한 교육 현장과 연대하기를, 나아가 공교육에도 발도르프 교육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동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다시 10년 후 “서울학교”가 세계적인 발도르프 학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2012





2022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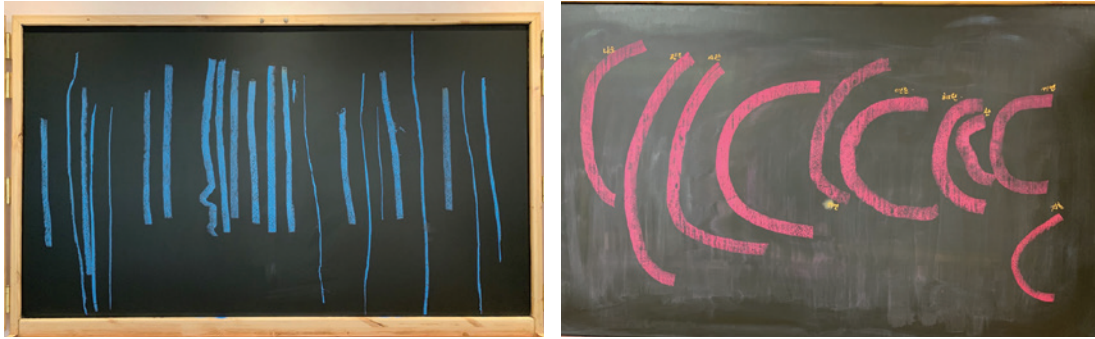


담임과정



삼 속 진실한 경험

담임과정 교사 이에빈



지평선 위로 둥근 해가 떠오릅니다. 햇살이 곧게 뻗어나가면 세상을 비춥니다.

1학년 어린이들은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켜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네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누구보다 해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을 닮은 동그란 꽃봉오리도 기지개를 켜고 싹이 고개를 쏘옥 내밉니다. 어린이들은 즐겁고 씩씩하게 학교로 옵니다. 하루 동안 해님은 둥글게 둥글게 어린이들의 머리 위를 지나는 동안 활기차게 공부하고 놀입니다.

저기 1학년 어린이들이 힘차게 꼬마야 꼬마야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열심히 배우면 어느새 꼬르륵 배가 고프지요. 곧게 앉아 점심을 꼭꼭 씹어 먹습니다. 어느새 저 멀리 해님이 지평선 가까이 가면 붉은빛으로 세상이 가득하고 해님 닮은 동그라미가 되었다 그 반이 되었다 하는 달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어린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고 깊은 잠을 자면서 새날을 기다립니다.

1학년 어린이들은 꽃문을 지나 학교로 들어서면서 매일, 4계절을 지나는 동안 매일 아침에 해님과 일어나 열심히 배우고 놀며 달님을 따라 잠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쉬워 보이는 매일이지만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코와 입은 늘 마스크에 막혀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를 따라 전염병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따라왔습니다. 일상에서는 산책을 하면서 큰 숨을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기도 힘들뿐더러 벗으면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하는 줄넘기보다 텔레비전과 핸드폰으로 일상을 보내는 일들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학교에 가기보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몸으로 경험할 것인지 머릿속에서 그럴듯하게 인식되는 가상현실을 경험할 것인지 선택하는 순간



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상현실의 기술들은 더 많은 선택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발도르프 학교의 1학년 어린이들의 삶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에 소개한 1학년 어린이들의 생활은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리듬을 만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삶이 이 시대와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1학년 어린이들의 배움과 학교생활은 어떤 의미를 느끼기 전에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참 어렵고 고단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학년 특히 1학년은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서로 돕고 조화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고되고 어려운 일을 해나갈 가치가 있을까?

일상에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
 주말에는 큰 마트보다 집에서 쉬는 일
 외부활동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산책을 꾸준히 하는 일
 학원을 다니지 않고 온전히 오후에 집에서 보내는 일

종종 “선생님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 스며든 많은 선택과 기회 면에서 보면 발도르프 학교에 들어온 1학년에게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도르프 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성장을 위한 배움 면에서 보면 덜어내는 편이 훨씬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1학년 어린이들에게 매일은 같지만 동시에 너무나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그 힘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잠에서 깨어나 몸을 바로 세우는 힘, 내 팔과 다리로 가방을 메고 걸어 학교 울타리로 들어오는 힘, 얼음하며 자신의 몸을 정확하게 멈추는 힘, 두 손을 모아 식사 기도를 하고 오물오물 밥을 먹는 힘, 자기 전 기도하며 잠 자리에 누워 잠으로 드는 힘 이러한 힘들은 머릿속 세상에서는 이를 수 없지요. 정말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삶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경험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속에서 발도르프 학교 1학년의 생활이 이 시대에 진정한 가치를 알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름이 가까워 오는 때에 한 어린이가 점점 학교를 일찍 와서 물었습니다.

“점점 학교를 일찍 오네? 어떤 일이야?”

그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해님이 일찍 일어나서 저도 같이 일어났어요.”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이지요. 어린이들은 어쩌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삶을 온전히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고되지만 발도르프 학교로 ‘퐁당!’ 뛰어든 우리 학교 모든 부모님들과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함께, 천천히, 매일 보석 같은 하루를 삶 속에서 찾고 발견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배우며 성장하는 참사람 2학년과 수와 셈을 배우며

담임과정 교사 김경주



2021년 6월 하지가 가까워진 어느 날 2학년 교실에서 ‘…10.9.8.7…1 발사’하는 함성소리가 들립니다. 1층 복도가 요란스럽게 흔들립니다. 10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며 우리는 걷고, 발을 구르고, 세계, 약하게 소리를 내며 드디어 마지막 1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열기가 가득했고 얼굴이 발강게 달아올랐습니다.

노력 속에서 찾아낸 물입의 순간을 거쳐 로켓이 발사되듯 의지가 솟아오르고 마음과 사고가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좀 더 리듬을 더해 노래하고 춤추듯 1212단도 낭송했습니다. 모두가 1212단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소리 높여 낭송하지만 끝나면 더 이상 정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고 몸속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스며듭니다.

몸속 깊이 수의 영양분을 가득 채운 다음 큰 날숨 한 번 쉬고 해님 책상에 앉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머릿속

계산 기회를 갖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 속 세상일에 사칙연산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호흡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장 깨어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은 문제를 듣고 손을 듭니다. 바로 답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다릴 줄도 압니다. 선생님은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답을 듣습니다.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답할 기회를 기꺼이 기다리며 대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아는 것은 아닌데 학급 천사가 힘을 발휘하여 거의 모두가 정답을 맞히는 집단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 칠판이나 공책 작업 등 꼭 개별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왕에게 아들 4명이 있습니다. 왕은 아들 4명에게 자신이 가진 다이아몬드 10개를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이래저래 자신이 생각한 것을 개인 칠판에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 1) 아버지가 2개 가지고 아들에게 2개씩 준다.
- 2) 아버지 1개, 신하 1개, 아들에게 2개씩 준다.
- 3) 10개 다이아몬드를 모두 반으로 쪼개어 아들에게 5개씩 준다.

우리 반 아이들 대다수가 3번의 경우가 제일 좋답니다. 작은 예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 생각과 기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폭넓게는 인간적,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며 개념과 개념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듯합니다. 수학 문제를 대할 때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수학은 여러 방법들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준과 명확성을 가지고 사고를 통해 법칙성을 발견해 갈 수 있는 듯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앞과 뒤가 분명한 도덕적 학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찾아낸 답을 식으로 써 보았습니다.

- 1) $10-2=8/8 \div 4=2$
- 2) $10-1-1=8/8 \div 4=2$
- 3) $10 \times 2=20/20 \div 4=5$



‘아하, 그렇지’하고 감탄사를 내는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과 식으로 정리하는 것에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식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계산이 빠른 아이들에게는 식을 그림으로 표현할 기회를, 그림으로 이해가 빠른 아이들에게는 식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수학 시간 개별 차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스스로 해결하며 다음 단계를 만들고자 동기부여하고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그 도전은 2학년을 넘어 3학년에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2학년의 짧은 수와 셈 이야기였습니다. 교사로서 수와 셈 수업을 하며 아이들 발달 단계와 성향에 대해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물 계산에, 머릿속 계산에, 실제 계산에 한 측면으로 머물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기질에 따라 사

칙연산과 계산 방법 선호도도 달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수의 세계로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 특정 성향을 배제한 언어를 사용하며 문제를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학년일수록 실물에서 그림, 상상에서 사고로 성장하는 모습을 짧은 시간 안에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늘 배움에 긍정적이고 스스로 노력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수와 셈, 넓게는 수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아이들이 세상의 법칙을 발견하고 배워가는 멋진 사고의 연습을 제대로 해 보길 바랍니다.



빛의 정원

